

만남

2015 5월

통권 124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예수를 만나서(요한 1,43-51) —————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겸손(집회 3,17-25) —————	4
주임신부님 교리	교리 98~101 -----	7
가정 교회	태아를 위한 기도 I —————	13
우리들의 이야기	—————	14
찬 양	고인의 기도 -----	18
묵주기도 신심	—————	20
공동체 소식	—————	21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5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6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7
미사안내	—————	28

《교황님의 5월 기도지향》

❖ 일반 지향 -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기

우리가 무관심의 문화를 거부하고 고통 받는 우리 이웃, 특히 아픈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도록 기도합니다.

❖ 선교 지향 - 선교에 열린 마음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의 전구로 언제나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15년 5월 칼럼글

예수를 만나서(요한 1,43-51)

만남.

인생은 만남입니다.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 사물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만남.

인생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똑같은 나무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무꾼을 만나면 도끼자루가 될 것이고, 깡패를 만나면 몽둥이가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들을 훈육하는 사랑의 매가 될 것이고, 목수를 만나면 가구나 옷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서 땀감밖에 안될 나무도 목수의 손에서 훌륭한 재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은혜와 복을 쌓는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원수를 만나서 미움과 증오를 쌓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달라서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 수도 있지요. 다 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타나엘은 필립보의 인도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은 나자렛 사람 예수를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타나엘, 그리고 시몬과 같은 어부들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서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 겸손(집회 3,17-25)

◆ 저번 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한다.

◆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0장 ‘생활한 제물’ 1절과 2절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 주님 초대하기 (화답송)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겸손한 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저희의 손님이 되어 주십시오.
- 주님, 자신을 낮추는 마음이 화해와 평화를 선물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눔)

(진행자) 어느 분이 집회서 3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7 애야, 네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여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네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18 네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더욱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애를 받으리라.

19 높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 주신다.

20 정녕 주님의 권능은 크시고 겸손한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21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네 힘에 부치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 22 너는 명령을 받은 일에만 전념하여라. 숨겨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23 네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네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다.
 24 그들의 억측이 많은 이들을 빛나가게 하고 악의에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그르치게 한다.
 25 눈동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소리치지 마라.

1.(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2.(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3.(진행자) 마지막으로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눔)

-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삶에 유익을 가져다 준 경험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 “겸손이 미덕이긴 하나 언제까지 겸손할 수만은 없다. 겸손과 소극적인 태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겸손하되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최적의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고 스티브 잡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광고의 시대이고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집회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소공동체장)

교만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교의 대상은 늘 자신의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은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차이가 난다하여 우월감을 가지지도 않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허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지혜에 맞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분은 늘 인간과 자연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아드님은 당신 자신을 낮추는 일조차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겸손은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성취한 일에 대한 보람은 살아가는 힘을 북돋워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까지도 풍요롭게 해 줍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자유기도 (진행자) - 영성체 후 : 마음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 사제와의 통교 - 미사 강복 후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220장 ‘생활한 제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교리98

성경 길잡이 (67)

서간 -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는 로마 제국의 속령인 마케도니아의 북동 지역에 있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필리피 서간의 주 내용은 신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적들을 조심하라는 바오로의 경고입니다. 그 적들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의 율법에 얽매었다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관심을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라고 독려합니다. (3,2-21)

성경 읽기 - 2장 1-18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야 할 소명.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찬미가가 있다.

서간 -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 쓰인 계기는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어난 교의적 혼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상세력과 천상의 권세가 화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은근히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술, 점성술, 신비로운 의식 따위를 권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상 가운데 일부가 영지주의적 (영과 정신은 선하고 육과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물질을 만든 저급한 신으로 보았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의 단절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고 그리스도의 인성에 타격을 줄 만큼 신성을 강조하였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이 악한 인간의 육을 입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설명하는 기독교론은 가현설 (假現說)로 이해된다.) 이단의 요소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이단 사상은 나중에 구원이 신비적 지식을 통해 온다고 주장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이러한 사상이 그리스도교 사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며, 구세주요, 주님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한 그리스도

교의 정통적 신앙을 표현합니다.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우리에게 우리 구세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과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되라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의 우리의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성경 읽기 - 3장 1-17절.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에 대한 기술.

교리99

성경 길잡이 (68)

제2세대 그리스도인

군인들이 십자가 나무를 향해 처형할 노인을 내동댕이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승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 그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인들이 그 노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못이 살과 뼈를 관통해 나무에 박히도록 내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재빨리 그 노인의 발에 못을 쳐 십자가 본 나무에 단단히 고정시키고 십자나무를 끌어올려 그들이 준비한 구덩이에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고통에 신음하며 되뇌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팔을 등 뒤로 묶인 바오로가 사형 집행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려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육중한 칼날이 순식간에 원을 그리며 번쩍입니다. 바오로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죽음을 통한 삶으로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가 순교함으로 한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교로 이끌었으며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임명했

습니다. 마침내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의 정확한 사망 일자란 알 수 없으나 가장 믿을 만한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로마에서 대략 64-67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시기에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에는 많은 로마 그리스도인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박해는 네로가 자살한 68년에 끝이 납니다. 이때까지 베드로와 바오로, 다른 선교사들은 팔레스티나,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스, 스페인 전 지역에 걸쳐 그리스도교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 달했는데 대다수가 이교도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저작과 바오로 서간이 널리 배포되었고, 신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할 특권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했습니다.

교리100

성모성월 특집 (69)

올바른 성모 신심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모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성모신심’에 관한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헌장은 ‘마리아 공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하느님 말씀의 설교자들은 성모의 고유한 품위를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지나친 마음의 협소함(minis mentis angustia)과 마찬가지로 또한 온갖 거짓된 과장(omnis falsa superlatio)도 힘써 피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그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라 성서와 교부들과 교회학자들과 교회의 전례를 연구함으로써, 복되신 동정녀의 역할과 특전이 모든 진리와 성덕과 신심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올바르게 밝혀주어야 한다.

참된 신심은 효과 없는 일시적 감정(affectus)이나 또 어떤 허황된 신뢰

감(oredulitas)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된 신앙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meninerint). 그 참된 신앙에서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탁월성을 인정하게 되며 성모님께 자녀다운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덕성을 본받도록 자극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성모신심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다.

- 본당이나 신자가정에 가보면 예수님 상은 없어도 성모상은 있습니다.
- 많은 신자들은 하느님 성삼의 아들보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더 즐겨 부르는 것 같습니다.
- 어떤 사람은 하느님 삼위의 이름보다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적이 이루어지는 듯이 선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우리는 다른 어느 성월보다도 성모성월을 한층 더 성대하게 외부행사로 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성모신심이 공의회 뜻대로 올바르게 그리스도 신비와 관련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성모신심 행사를 보고 갈라진 형제들이 천주교는 역시 '성모교회' 라고 비평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심들으로써 우리는 성모님의 신앙과 사랑을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의 덕택으로 횡재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성모 마리아가 차지하는 그 비중에 알맞게 우리의 성모신심을 조절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덕성을 본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리101

성모성월 특집 (70)

예수님 중심이신 성모님

둘째, 복음에 보면 성모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예수 성탄의 예고를 받을 때 성모님은 놀라서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고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 거기서 3개월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② 예수님의 소년시절에는 성모님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사흘만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자 깜짝 놀라며, 반가워서 “애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우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셨지만 성모님은 그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③ 가나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 잔치 도중에 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 집의 난처한 입장을 도와주고 싶으셨던지 예수님께 술이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하여라.” 하고 하인들에게 일렀고, 예수님은 준비된 항아리의 물을 술로 변화시킴으로써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④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성모님은 거기에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성모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 듯이 아무 말씀도 없이 예수님의 배려에 따랐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관련하여 나타나시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볼 때 성모 마리아는 우리의 보통 어머니들과 똑같이 평범한 분이며 서로 하느님과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폭넓은 수용력을 지닌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소식과 소년 예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대단히 폭넓은 수용력을 지닌 분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소식과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대답하신 말씀, 또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배려를 성모님은 말마디 상으로 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현실을 마음의 이해로써 언제나 속속들이 수용하셨습니다. 성모마리아께서 이와 같이 인간과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이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신 것을 생각해볼 때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원만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신자였으며, 모든 믿는 이들의 본보기였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모성월을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의 이러한 인간과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학공부를 할 때나 혹은 타인과의 대화를 나눌 때 너무나도 종종, 그 말들의 겉에 나타나는 것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마디 속에 감추어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성모 마리아를 본받아 그 말씀의 속에 있는 현실까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합시다. 성모 마리아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하느님께서는 사실상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주신다고 하느님께서는 사실상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안네 신부



태아를 위한 기도 I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시어 감사하나이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주님의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도록 도와주소서.
 가족들의 정성과 함께 예쁘고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보살펴 주소서.

우리 부부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 하도록 지켜 주소서. 증오나 분노, 오만이나 폭력 등을 없애 주소서.
 늘 겸손으로써 착하고 바른 삶을 가지도록, 갓가지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새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 우리 부부가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생명이시요 부활이신 주님,
 새로운 생명을 위해 간절히 청하오니 우리에게 순산의 은혜를 주소서.
 아울러 우리 아기가 균형 있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주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믿음직스러운 인물이 되게 하소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착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는 주님,
 태아가 성장하는 동안 몸의 각 기관이 성령의 빛을 받아
 기능이나 조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키워 주소서.

모든 아기들의 보호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생명을 부족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의 은총을 전구하시어 아무 탈 없이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울러 새로운 아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은총을 빌어 주소서.

“하느님께서서는 살아 있는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마르 12,27)



정명옥 살로메

그분을

오늘 아침도
밝은 새 날을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게 하시어

감사한 마음 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시네.
매 순간이
당신의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당신의 길 가렵니다.

가던길 멈추지않게
당신 사랑의 속삭임에
귀 기우리렵니다.

지치고 힘들면
당신을 기리면서
새로운 힘과 평화를 얻으리.

잠시 쉬었다가
마음을 다듬고
저물어 가는 해를 바라보며
영원한 그 분을 뵈오리 .

Pr. 평화의 모후가 **2015년 5월 20일(수)**를 맞이하여 **1000**차를 맞이합니다. 이에 단원들이 감사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허 가밀라

저의 사랑, 저의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군단 레지오 마리아가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에 뿌리를 내린 지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 날까지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처음 성모님의 군대의 단원이 되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성모님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휴가도 마다하고 빠짐없이 주회에 참석했었지요. 이후로도 단원들의 규칙과 상훈이 성모님의 보금자리와 저를 지탱해주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00번의 주회합을 거치는 동안 저희 단원들은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희생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봉헌했지만 어느 순간 레지오 마리아의 활동이 일상의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레지오 단원들의 기도와 희생, 선행과 자선이 오만 군대의 감초가 된 약방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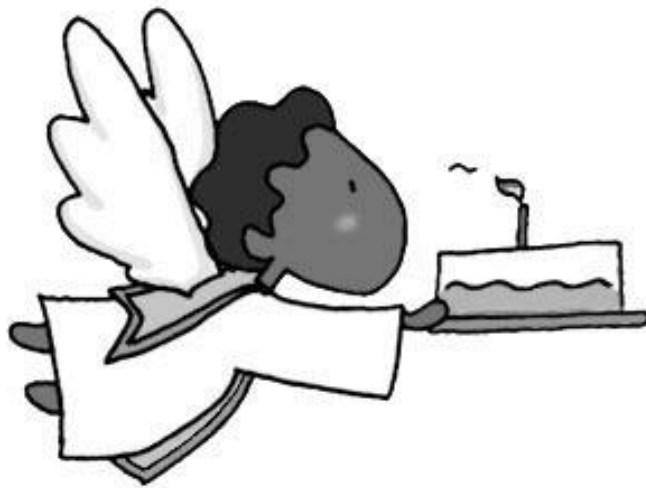
저희들의 마음의 깊이와 생각은 형형색색이지만 어머니께로 향하는 길은 고운 장미 빛 외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올린 한 땀 한 땀의 장미 빛 묵주 알은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성모님의 전구가 단원들의 길잡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더불어 본당 신부님께서 알로꾸시오로 엮어 주시는 준주성범은 저희 안에 철학이요 새로운 내적 생명을 더욱 샘솟게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무르익은 저희들의 웃음꽃이 이제는 저녁 하늘의 노을을 닮아있네요. 지난 날 보다 앞으로 만날 날들이 짧기만 합니다. 허니 주님, 저희가 주 중에 한 번 이라도 더 만남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마음을 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혹여 소소한 말과 행동에서 서로에게 받은 상처나 서운한 마음 있다면 그 또한 기도로 하느님께 봉헌하게 하시고, 꽃잎이 모여서 한 송이의 꽃이 되듯 우리들의 미소가 모여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모님, 당신의 장미 내음 짙은 음성으로써 저희로 하여금 감사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함부르크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되게 하소서.

웃음 꽃 피는 행복 한 시간, 하느님의 집 우리 공동체, 주 회합에 함께 하는 레지오 단원들과 협조 단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을 어머니 성모님

19년을 수 없이 불러온 이름, 성모님.
 당신 사랑의 종이 되려 묵주알 손에 들고,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떨고 있던 시간들.
 성모님의 신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봉사하겠다고 기도로 다짐 했던 시간들.
 우리 모두 사랑의 횃불 밝히며,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위해 묵주기도로 성모님께 매달렸던 시간들.
 성모님의 생애가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명, 인내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로 받던 시간들.
 하찮은 일로 의견 충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믿었던 단원들의 불신과 외면으로 쓸쓸한 빈자리에 눈물로 보낸 시간들.
 우리들의 행동에 예민한 반응은 구름처럼 날아다니고 우리들은 무기력 속에서도 성찰의 기도 수없이 바친 시간들.
 오늘도 우리들은 성모님의 자랑스러운 딸 되려 묵주알 한 알 한 알에 당신의 사랑 실어 당신사랑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보내옵니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평화의 모후 단원님들
 영적 무기 손에 들고 은총의 선물인 기도 속에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영적지도자의 지도 속에 멋진 성모님의 군사들로 거듭 나소서. 사랑합니다.

262

고인의 기도

최민순 시 / 신상옥 곡

주 여 오 늘 나 의 길 에 서 험 한 산 이 옮 겨 지 기 를 기 도
 내 가 가 - 는 길 에 부 뢰 히 는 돌 이 저 절 로 굴 러

하 지 하 지 않 아 요 주 여 기 도 하 지 않 아 요 -
 가 길 원 치 않 아 요 굴 러 가 길 원 치 않 아 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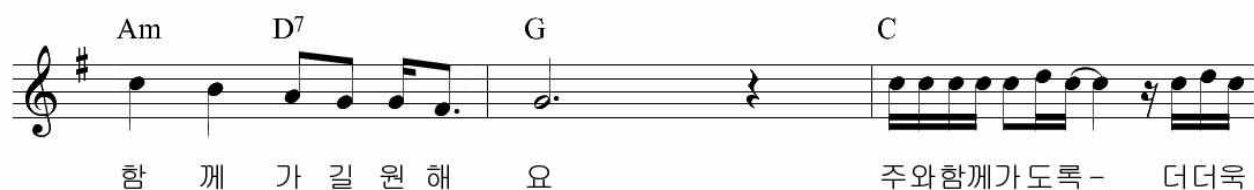
다 만 저 에 게 - 고 갯 길 올 라 가 - 도 록 - - - - - 힘 을 주 소 서 - - - - -

다 만 저 - 에 게 - 고 갯 길 올 라 가 - 도 록 - - - - - 힘 을 힘 을 주 - 소 - 서 주 여

넘 어 지 게 하 는 돌 을 - 오 히 려 발 판 으 로 만 - 들 어 - - 가 게 하 소

서 - - - - - 그 넘 어 지 게 하 는 돌 을 - 오 히 려 발 판 으 로 만 - 들 어 - -

가 게 가 게 하 - 소 - 서 주 여 넓 고 편 - 편 한 길 그 런



묵주기도 신심

교황 바오로 6세는 사도적 권고 「마리아 공경」(Marialis Cultus)에서 「묵주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끝없는 찬미」이고, 「묵주기도야말로 순수한 기도요 그 내용은 오로지 성서적이며, 구원의 역사에서 성모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였다(46항). 즉, 묵주기도 신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묵상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주기도 신심은 1830년 이후 성모 마리아가 발현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호소하면서부터 더욱 가속화됐다.

세계 성모 발현지 가운데 특히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호소한 곳은 프랑스 루르드와 포르투갈 파티마다.

1858년 루르드에서 발현했을 때, 성모 마리아는 오른쪽에 묵주를 늘어뜨리고 양손을 가슴에 모은 모습으로 베르나데트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또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파티마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는 자신을 「로사리오의 여왕」이라 밝히고 매일 묵주기도를 15단씩 바치면 전쟁이 끝나고 죄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6번의 발현 중 세 번째 발현 때는 각 단을 바친 후 「구원을 비는 기도」를 할 것을 지시했으며, 마지막 발현에서는 자신을 「묵주기도의 어머니」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역대 교황 가운데 레오 13세는 세계 평화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호소하였고, 비오 10세도 「묵주기도처럼 아름답고 은총을 많이 내리게 하는 기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 5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필립보 (St. Pillip)	김 경 열 이 수 용	16일	요 한 (St. John)	홍 경 영
4일	카타리나	오 경 은	22일	율리안나 율리아	최 효 정 방 수 정
12일	젬마 (St. Gemma)	김(이)정자 방 영 자	30일	요안나 (St. Joana)	윤 석 순
14일	크리스티안 (St. Christian)	이 성 원			
25일	소피아 (St. Sophia)	이 신 자 이 공 중			

❖ 5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야 곱 (St. Jacob)	정광하(H) 이태호(O)	14일	마리아도미니카	이혜진(H)
6일	베네딕타 (St. Benedicta)	민병진(H)	15일	니 콜	김지희(H)
8일	이 다	최이다(H)	22일	릿 따	김남화(B)
12일	젬마	김선주(H)			

❖ 세상을 떠난 교우를 생각합니다. ❖

5월 26일	✠김 동창(요 섯)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

❖ 5월 성가번호

5월	입 당	봉 헌	마 침
3일	35	211	245
10일	414	221	131
17일	137	511	248
24일	143	145	142
31일	81	209	244

❖ 5월 미사 전례 봉사자 ❖

5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카페 봉사
3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밍고) 김영희(헬레나)	이정수(토마스) 김진호(프란치스코)	요셉 마리아
10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김형웅(야고보) 김정자(젼마)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곽케빈(요셉)	1구역
17일	박귀동(토마)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윤예진(모니카) 심은희(안나)	주일학교 복사단	2구역
24일	하노버 공동체	김매자(베로니카) 김애란(세실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3구역
31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강순행(말가리타) 권지연(안드레아)	이정수(토마스) 이현묵(요셉)	4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4월 4일	4월 5일	4월 12일	4월 19일	4월 26일
계(€)	153.72	485.80	242.58	253.80	269.12

❖ 자진헌납금 ❖

2015년 3월 23일 - 4월 26일 자진헌납금 납부자 명단 :

한선지, 윤예진, 김형웅, 이중지, 배성우, 권지연, 육종인, 이기열, 이정은, 박귀동, 강신행, 이수웅, 손대조, 우동천, 이경구, 이종화, 이현묵, 이정수, 이영희, 손수희, 이공종, 진윤희, 현영애, 박재형, 한말조

구좌입금 : 허두옥, 서유미, 김치수, 최현봉, 곽케빈, 허길조, 이성원, 김진호, 남궁 춘배, 김대현, 홍경영, 최화영,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회장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5월 6일은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 미사 후에 오후 19:00 만남 성당 밑 강당에서 봉헌되어집니다. 5월의 성모성월을 거룩한 전구자 성모님과 함께 기쁘게 나누시길 기도합니다.
2. 최진우(아드리아노)신부님 후임으로 로마에서 공부를 하러 오신 조우현(요한) 신학생이 5월 9일 로마에서 부제품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3. 5월 14일(목요일)-16일(토)은 유럽 레지오 피정입니다.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참석하는 단원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4. 5월 20일은 Pr.평화의 모후 1000차입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5. 5월 23일은 주교좌 성당에서 서품식이 있습니다.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6. 5월 24일(성령강림 대축일)은 본당의 날입니다.
 - 1) 언제 : 5월 24일(성령 강림 대축일) 주일미사 11시, 10시 30분까지 도착
 - 2) 어디서: Pflanzen un Blumen in Hamburg
 - 3) 주차장: Pflanzen Blumen Glacischaussee 2
 [참고] 주일이라 양 길가로 주차 가능함. (무료) 만약 주차자리가 없으면 들어가자 바로 오른쪽 “ Eingang C “ 로 들어가 주차 가능함. (하루 종일 4유로) - <3명이 태극기 들고 주차 안내>

시 간	내 용	비 고
09:00	준비조 - 설치 및 준비	사전 준비
10:30	도착완료	공동체 별
11:00	주일미사	성령강림대축일미사
12:30	점심식사	정, 백팀 나누기
14:00	친교의 시간	공동체 화합의 시간
18:00	정리 및 환송	뒷정리

7. 예비자 김보경 자매님, 김경미 자매님, 김 건 형제님, 노하빈 자매님, 이희자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도록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브레멘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 / 2431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하노버 공동체에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00시에 소공동체 기도 모임을 안토니오 성당에서 갖습니다.
2. 미사 후 전례교리가 있습니다.
3. 4월 미사 후 신부님과 함께 모든 공동체가 사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4월 25일(토) 17:00 시에 이 복순 엘리자벳 자매님 가정에서 소공동체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나눔과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청합니다.
2. 노금순(테레사) 자매님이 오빠상을 당하셨습니다. 故人 노분수 형제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한 말 조 마리안나	040/ 5069 7342 0157 7021 0466
구 역 장 모 이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구 역 분과장	회장단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사	이 선 주 로 사	0176 7636 2699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0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강 순 행 말가리다	040/ 297 543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김 영 희 클라우디아	040/ 532 4138 0177 724 6335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최 화 영 시 문		8903264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김 수 희 모니카		04106-72958
		3구역	구역장	김 형 웅 야고보		0157 84305419
			총 무	김 정 자 켄 마		6310912
		4구역	구역장	정 명 옥 살로메		6448623
			총 무	이 순 자 마리아		41091742

❖ 2015년 5월 ❖

5 월 중 행 사 예 정 표

(성 모 성 월)

1	금	근로자의 날	1구역 소공동체	
2	토	성 아타나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브레멘 공동체
3	일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사목협의회	
4	월			
5	화	어린이날		
6	수	입하	성모의 밤, 꾸리아	꾸리아 주관
7	목			
8	금	아버이 날	2구역 소공동체	
9	토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10	일	부활 제6주일	청년 소공동체	
11	월	입양의 날		
12	화			
13	수			
14	목	성 마티아 사도 축일	유럽 레지오 피정 - 16일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본당 신부님 출장
15	금	스승의 날	3구역 소공동체	
16	토			하노버 공동체
17	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18	월	부활 제7주간 월요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19	화	교육 주간		
20	수			
21	목	부부의 날, 소만		
22	금		4구역 소공동체	
23	토			
24	일	성령 강림 대축일	본당의 날	
25	월	연중 제8주간 월요일		
26	화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27	수			
28	목		연령회	
29	금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30	토			
31	일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최 종 태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목회장 한 말 조 마리아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최 종 태 요한마리아비안네 본당신부님	viannae@hanmail.net H.P : 0176 8464 7981
편 집 인	남궁춘배 바로톨로메오	cbnamgoong@hanmail.net H.P : 0151 2341 2732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시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금요일 각 소공동체 17시 30분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고찬연(아우구스티노), Tel : 0420 952194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최한우(바오로), Tel : 0541 37027

H.P : 0157 5436 0230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5시 30분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회 장 : 이범이(바오로), Tel : 0511 748945